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

보도시점 2024. 3. 13.(수) 11:00 < 3.14.(목) 조간 > 배포 2024. 3. 13.(수)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 점검

- '23년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목표 대비 144%로 초과달성
- 무탄소 에너지로의 대전환, 에너지 수급 안정성 확보 위해 협력키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향후계획,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 논의를 위해 3.13.(수) 한전, 가스공사 등 14개 공공기관과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를 통해 재무위험기관으로 지정되었던 12개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에 따른 '23년 이행실적을 점검한 결과, 당초 목표 절감액(8조 2,458억 원) 대비 144%의 비용을 절감(11조 8,658억 원)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❶자산매각, ❷사업조정, ❸비용절감, ❹수익확대, ❺자본확충에 기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회의에 참석한 에너지공기업들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경영혁신 성과를 내기 위해 올해에도 재정건전화 이행을 차질없이 수행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남호 2차관은 "에너지공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자구노력의 결과가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하면서, "그간 노력에 안주하지 않고, 기존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는 한편, 추가적으로 경영효율화가 가능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발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에너지공기업의 '24년 주요 업무 추진을 위한 협력사항도 논의하였다. 각 에너지공기업은 다양한 무탄소 에너지를 활용하여 탄소중립에 기여하고, 에너지 공급의 안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추진계획, 기술개발 계획 등을 발표하였다. 에너지공기업은 재정건전화를 위한 경영혁신을 지속하는 한편, 주요 업무를 차질없이 추진하기 위한 사업과 투자도 적극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탄소중립을 이행하면서도 에너지안보를 공고히 하는 것이 전 세계 에너지정책의 공통된 목표"라면서, 무탄소 에너지로의 전환과 에너지 수급의 안정성 확보에 에너지공기업이 앞장서줄 것을 주문하였다. 특히, "전력수요 변동성이 커지는 봄철 전력 경부하기에 대비하여 전력수급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준비를 철저히 해달라"고 당부하였다.

담당 부서	에너지정책관 에너지정책과	책임자	과 장	이경수 (044-203-5120)
		담당자	사무관	김태훈 (044-203-5126)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의원으로

OPEN 출처표시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

붙임 **에너지공기업 경영혁신 점검 회의**

□ 회의 목적

○ 주요 에너지공기업의 **재정건전화 계획 이행실적과 향후계획 점검**

○ 2024년 주요 업무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 필요사항 논의**

□ 회의 개요

○ **일시/장소 : '24.3.13(수) 14:00~15:30 / 무역보험공사(11층 대회의실)**

○ **참석자**

- **(산업부) 차관**(주재), 에너지정책관, 자원산업정책국장, 원전산업정책국장, 에너지정책과장, 전력산업정책과장

- **(참석기관)** 한전·발전5사·한전KDN·한수원·한난·가스공사·석유공사·광해광업공단·석탄공사·에너지공단 등 14개 공공기관장

□ 세부 계획

시간		주요 내용	비고
14:00~14:05	('5)	모두 발언	산업부 2차관
14:05~14:45	('40)	재정건전화 이행실적 및 계획, 2024년 주요 업무계획 발표	참석 기관
14:45~15:25	('40)	토론 및 협력 필요사항 논의	참석 기관
15:25~15:30	('5)	마무리 발언	산업부 2차관

※ 2차관 모두발언 종료시까지 공개